

There Is No Cheap Hope
희망은 값싼 것이 아니다

본문 : 누가복음 23 : 26-28, 33-34, 39-43

마 삼락 박사
Samuel Hugh Moffett

1. 신약성서에는 부활이 없이는 희망도 없다. 그러나 소망은 부활을 기다리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십자가 없이는 희망도 없다. 희망은 고난의 와중에서 시작된다.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된대로 성서는 십자가에 달려십에 대하여 무엇을 이야기 하고 있는가 하는 조명아래서 소망과 고난에 대하여 세가지 점을 말해보려 한다.

십자가의 처음 사실은 고난이지 희망이 아니다. 누가복음 23 : 26을 읽으면 아래와 같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때에 시골에서 돌아보고 있는 구레네의 시몬을 붙잡아 예수의 뒤에서 그에게 십자가를 짊어가도록 하였다. --- 수많은 군중이 예수를 따랐고 울부짖고 그를 위해 애통하는 여인들도 따라갔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

영어로 씌어진 한국에 관한 가장 최고의 소설중에 하나는 리차드 김(김은국)씨가 쓴 순교자이다. 비록 이 소설이 한국 순교자의 참정신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소설은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 시작된다. (이곳은 나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 도시는 진격하는 유엔군의 손에 탈환되었다. 한국군은 한때는 한국에서 제일 큰 고척였지만 이제는 외형만 남아있는 중앙 장로교회의 폐허속에다 정보국을 세웠다.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한국군 정보 장교인데 그는 북한 공산군이 서둘러 피난하기 직전에 14명의 기독교 목사들을 둘러싸서 그들중 12명을 쏘아 죽이고 두사람을 감옥에 처넣는 데 이 두 목사가 평양이 탈환되었을 때 출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필연적으로 이 소설은 아래 두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추구하는 내용이다 1) 어째서 두명만 살아남게 되었나 2) 열두명의 순교자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나. 그러나 보다 심각한 질문이 그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드라마속에 짜여져 들어가 있다.

젊은 정보 장교는 이 심각한 질문을 말로 표현한 최초의 사람이다. 그는 두 생존자를 발견하게 된다. 그들중에 한 사람은 그가 받은 고통 때문에 정신이 나가 있었다. 다른 한사람은 움푹패인 얼굴에 열기 있는 눈을 지닌 사람으로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있었다. 생존자들은 자기를 왜 남겨졌는지 다른 열두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 장교는 그들을 의심한다. 더우기 그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앞에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을 때 그리고 살해당한 열두사람을 생각했을 때 생생하게 기억되는 전쟁의 공포가 그의 마음속을 섬광처럼 내달렸고 경정의

물결이 그를 휩쓸었다. 그는 신문을 끝내고 그곳을 떠나려고 한다. 그러다 말고 멈추어서서 마지막으로 주저하듯이 한가지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하나님은 - - - - 뉘성들의 고난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협의회가 논의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아닐까. 인간은 고투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가. 인간은 생명과 평화와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몸부림친다. 그러나 그가 성공했다 해도 생은 고난이요 평화는 환상이며 정의는 맹목이다. 진리에 대하여 세계의 대부분이 마치 빌라도가 그랬던것 처럼 "진리가 무엇이나" 라고 지금도 묻고 있다.

그 소설은 분명한 대답을 주지 않는다. 그 장교는 "당신의 하나님은 뉘성들의 고통을 알고 있는가요" 라고 묻는다. 그리고 움푹 들어간 눈을 지닌 그 목사는 아직도 자기 자신의 고통에 휩싸여 침묵중이다.

아마도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이다. 즉 고통을 침묵 가운데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고통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 설명이 없는 바로 이 사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이다. 시몬이 순진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그가 십자가를 지었다.

여자가 울부짖었을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말씀 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말고 너 자신을 위해 울어라" 왜? 그들은 무엇을 했던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그러나 인간의 투쟁이 그 고통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행위도 없다. 그것이 첫째 고통이다. 그러나 아시아는 그 사실을 환기시킬 필요는 없다. 이 대륙은 다른 그 어떤 대륙보다도 더 인간적인 고통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왔다. 일본의 경우 동경 대지진에서부터 히로시마의 원폭을 들수 있겠고 인도네시아와 그 주변 바다에 널려 있는 여력섬들에 있어는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 재난이 있었다. 인도의 경우는 어떤가? 나는 칼카따의 거리를 걸으면서 인간 고통을 느낄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1년전 북경 북방지역에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서 백만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갔다. 그러나 세계는 이에 대하여 거의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아시아는 저 멀리 있었다. 고통은 인간이 자연을 거슬릴 때보다도 인간과 인간끼리 대항하여 싸울때 더욱 더 심각한 것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진자들은" "못 가진자"와 대립된다. 세계상 30여개의 가난한 나라들은 내가 압리로는 동남아시아로부터 중앙 아프리카엔 걸치는 광대한 가난의 지배에 널려 있다. 아시아에만도 하루 겨우 11센트로 살아야하는 사람들이 2억4천5백만이나 된다. 11센트라니! 2억4천5백만 인구는 미국 전국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이다, 이 모두가 하루 11센트로 산다면 한달에 3달러 40센트가 되는 셈이다. 더우기 정의와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오는 고통이 있다. 이곳 한국은 그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287회에 이르는 큰 침략에 대항하여 지금껏 싸워왔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평화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고통은 진리를 위한 인간의 투쟁 가운데 있다. 나는 진리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없는 곳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인 영혼의 병이 있다. 아시아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나 그들 거의 모두가 고통을 당한다. 그 이유는 적어도 숫적으로 말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들이 적은 데로 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수가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단지 예루살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시아에 대해서만도 아니고 전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자신을 위해 울라 ---" 거기에도 위로도 없고 소망도 없다. 오직 생명은 고된 것이고 인간의 투쟁은 인간의 고통을 의미한다는 것을 괴롭게도 확인시키고 있을 뿐이다.

11. 그러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만일에 십자가의 처음 사실이 고통이라면, 두 번째의 사실은 우리가 홀로 고통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 당하신다.

누가복음 23 : 32 - 35을 읽으면

" 두 사람의 죄다른 죄수가 그와함께 죽임을 당하려고 끌려 갔다. 그들이 해골이라고 부르는 곳에 이르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두 죄수중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군중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었다. "

나는 아시아의 고난에 관하여 이야기 하여 왔다. 십자가는 인간의 고난을 이야기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말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통을 말해준다. 기독교 정신으로 여과될때 아시아의 고통으로부터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현대적인 통찰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특별히 적절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일본 신학자 가조 기다모리와 그의 저서 "하나님의 고통의 신학"에 대하여 언급코저 한다. 기다모리는 인간의 고난 배후에 있는 고통을 추적한다. 십자가에서의 예수가 당한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바로 그 심정에 까지 이르려 한다, 그는 감히 말한다. "고통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물론 그는 스스로 비판한다. 그는 초대 교회의 이단인 성부 순환설을 주장한다고 비난을 받아 왔다. 거기에 대해 그는 스스로를 잘 방어한다, 그러나 내가 더욱 더 고통의 신학을 읽고 그것을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비교해 볼 수록, 사랑은 고통보다 하나님의 본질에 더 가까이 있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된다. 혹시 정의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물질에 더 가까이 있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권세와 진리도 고통보다 하나님의 본질에 더 가까이 있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기따모리는 기독교의 소망이 결코 값싼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는 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옳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의 감상적인 예증을 될수가 없다.

십자가는 고뇌다. 그것은 억압받는 사람과의 일체감을 말하는 혁명적인 모델이 될 수는 없다. 그 고뇌속에서 예수께서는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중 한 사람에게만 희망을 보여 주었다.

우리 투쟁은 언제나 하나님의 투쟁이 될 수는 없다. 십자가는 슬로건으로 바꿔 칠수는 없다. 하나님의 고통은 곧 그것보다 훨씬 깊다. 그분의 고통은 몸의 고통이나 정치 체제의 고통이나간에 모든 고통을 포함하지 않는 그렇다 고 육체적도 아니요 정치적도 아니다. 기따모리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고통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은 사랑하기 위하여,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값고 계신 대가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옳고 그름을, 정의와 불의를 구분짓는 선을 지워버리지 않은 채로 용서하기 위하여 그분이 지불하시는 대가이다.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값으시는 댓가는 그분의 아들을 죽게 했고, 그 고통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분노가 합류되었다. "왜냐하면, 고통은 그분의 분노를 삼켜 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홀로 고통당하지 않는다.

111.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곳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십자가의 세번째 사실은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 한분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투쟁속에 있는것도 아니요, 그분이 고통속에도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속에 희망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개혁 신학자를 상기시킬 필요가 없으리라, 본문속에서 읽어보자 :

죄인중 한사람이 예수에게로 향하였다 (누가복음 23 : 42 - 43) :

"그가. 예수여 당신의 사자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임금과 함께 있을 때에 얼마나 희망은 빠르게 작동하는가! 우리의 고통중에서라도 소망은 즉시 활동하기 시작한다. "오늘"이라는 말에 주의하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권세와 희망의 물결이 우리의 고통속에서 우리를 들어 올린다.

1919년에 일어난 한국 독립운동은 현대에 있어서 불의에 대항하는 가장 활발하고 대규모적인 시위였다. 기독교인들중 이운동에 참가한 사람들 이한 역할은 그 운동이 비폭력적인 되게 한 것이었고 기독교인들이 그 운동을 주도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식민지 점령 정부의 군대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깨어졌다. 그 지도자 중 한사람은 의총무이며, 뛰어난 기독교인이며 애국자인 이상재 선생이었다. 그는 일본 경찰에게 의하여 모질게 고문을 당하였다. "누가 이운동의 우두머리냐, 너는 알고 있나" "그렇다" 그는 대답하였다. 그들은 호랑이처럼 그에게 달려 들었다. "누구나 우리에게 말하라. 누가 삼일운동의 주모자냐".

그는 조용히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주모자 이시고, 이천만 한국민중이 그 뒤에 늘어서 있다" 그러나 우리 투쟁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말인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가?

그분은 우리 투쟁에 동참하신다. 그렇다. 그러나 때로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홀로 그들을 당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다, 한 나이든 성도가 중병에 걸렸을 때 젊은 친구가 방문하였다. "당신은 무척 고생이 심하군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라고 그 젊은 여인은 도움을 줄까 해서 말했다. "예", 그러나 보세요! 하며 그 나이든 여자는 두손을 꺼내면서 말했다. "손에 손톱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 손톱을 가지셨습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기의 머리를 가리켰다. "내 머리에 왕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왕관을 쓰셨으니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다. 십자가가 없으면 희망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Session & World Missions & Reformed Church, Ex. Comm.

Sent, July, 1979

7/13/79

English/Korean

1979

THERE IS NO CHEAP HOPE

Dr. S. Moffett

Text: Luke 23: 26-28; 33-34; 39-43

In the New Testament, there is no hope without the resurrection. But hope does not have to wait for the resurrection. There is no hope without the cross, either, and hope can begin in the midst of suffering. Let me make three observations about hope and suffering in the light of what the Bible says about the crucifixion as recorded by Luke.

The first fact of the cross is the suffering, not the hope. Let me read Luke 23:26:

"And as they led (Jesus) away, they seized one Simon of Cyrene who was coming in from the country, and laid on him the cross to carry it behind Jesus. . . . And there followed him a great multitude of the people, and of women who bewailed and lamented him. But Jesus turning to them said, 'Daughters of Jerusalem, do not weep for me, weep for yourselves...'"

One of the best novels about Korea in English is The Martyred by Richard Kim, though it fails to catch the true spirit of Korea's martyrs. It opens in the North Korean capital of Pyongyang (which happens to be my home town). The city has fallen to advancing United Nations troops. The South Korean army begins to set up its intelligence headquarters in what remained of the Central Presbyterian Church, once the largest church in the country, now only a shell. There the main character of the book, a Korean intelligence officer, learns that the North Koreans, just before their hasty evacuation, had rounded up fourteen Christian ministers, shot twelve of them unaccountably spared two who were left in prison and freed when the city fell. Essentially the novel is the search for an answer to two questions. Why were two allowed to live? And what really happened to the twelve martyrs? But a deeper question is interwoven into the drama of the search for the truth of the affair.

The young intelligence officer is the first to put that deeper question into words. He finds the two survivors. One of them is out of his mind from his sufferings. The other is hollow-faced, with feverish eyes and a racking cough. The survivors say they don't know why they were spared, or what happened to the other twelve. The officer doubts them. Moreover he is not a Christian. But as he looks at the two living wrecks in front of him, and thinks of the twelve murdered men, all the remembered horrors of the war flash through his mind and a wave of emotion sweeps over him. He breaks off the interrogation and turns to leave. Then he stops and asks one last, hesitant question. "Your god--" he says, "is he aware of the suffering of his people?"

Isn't this what our consultation has been all about? Man struggles. Does God care? Man struggles for life and peace and justice and truth. But even when he succeeds, life is suffering, and peace is elusive, and justice is blind. As for truth, most of the world is still asking, with Pilate, "What is truth?"

The novel gives no clear answer. The officer asks, "Is your god aware of his people's suffering?" And the hollow-eyed minister, still wrapped up in his own suffering, is silent.

1979

Perhaps that is where most people begin--with a silent, almost fatalistic acceptance of suffering, suffering without rational explanation. It is where our text begins. Simon, innocent and uncomprehending, has laid on him the cross. And the women wail, and Jesus turns and says, "Daughters of Jerusalem, do not weep for me, but weep for yourselves.." Why? What had they done? And there is no answer. But neither is there any dodging of the fact that human struggle means human suffering. That is the first lesson.

But Asia needs no reminder of that fact. This continent has known more human pain than all the other continents combined. Japan: from the Tokyo earthquake to Hiroshima. Indonesia and the islands of the sea: and the greatest volcanic disasters in history. India: I walked through the streets of Calcutta and I could feel the pain. China: a year or so ago north of Peking in one gigantic earthquake a million people died. And the world paid very little attention. Asia was far away.

The suffering is still more cruel when it is not so much man against nature but man against man. The "haves", for example, contrasted with the "have nots". The **thirty**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I am told, are all in a broad band of **poverty** stretching from southeastern Asia across into Central Africa. In Asia alone live 245 million people who must live on 11¢ a day or less. Eleven cents. Why I spend twice as much for a cup of coffee and don't even think about it. 245 million people is more than live in the whole United States. And 11¢ a day is \$3.40 a month.

And there are the sufferings of the struggle for justice and for peace. This country of Korea has had to fight off 287 major invasions simply to maintain its own independence. War after war after war, and very little peace.

But the deepest sufferings of all are in man's struggle for truth. "I am the truth", said Jesus, and where He is not known there is a sickness of the soul that is a sickness unto death. And Asia may not know why, but here Asia suffers most of all, for Asia is the least Christian continent, at least numerically, in the world.

"Daughters of Jerusalem," says Jesus, and he is speaking not only to Jerusalem, not only to Asia, but to the whole world--"Daughters of Jerusalem, do not weep for me, weep for yourselves.." Not much comfort; not much hope there. Only the bitter reminder that life is hard, and that human struggle means human suffering.

II. But the text does not stop there. If the first fact of the cross is the fact of suffering; the second fact is that we do not suffer alone. God suffers with us. Let me read on in the gospel record: Luke 23:32, 35.

"Two others also, who were criminals, were led away to be put to death with him. And when they came to the place which is called The Skull, there they crucified him, and the criminals, one on the right and the other on the left.... And the people stood by, watching.."

I have been speaking of the sufferings of Asia. The cross speaks of human suffering also, but much more. It speaks of the suffering of God. I think it is peculiarly fitting that out of Asia's pain, as filtered through a Christian mind, should come one of the most penetrating modern insights into the meaning of the cross. I refer to Kazoh Kitamori, the Japanese theologian,

and his "theology of the pain of God". Kitamore traces pain beyond man's suffering, beyond Jesus' physical suffering on the cross, into the very heart of God. "Pain", he says bluntly, "is the essence of God". 3

He has his critics, of course. He has been accused of the ancient heresy of patripassionism. He defends himself very well there. But I wonder, the more I read of the theology of pain and compare it with God's revelation of himself in the Bible, if love is not nearer to the essence of God than pain. If justice is not nearer to the essence of God than pain. If power, and truth are not nearer to the essence of God than pain. But Kitamore is absolutely right in reminding us that the Christian hope is not cheap. The cross is not a sentimental illustration of God's sweet love for everybody. It was agony. Nor is it a revolutionary model of solidarity with the oppressed. In that agony Jesus held out hope to only one of the thieves crucified with him. Our struggles are not always God's struggles. The cross doesn't reduce to a slogan. God's pain is deeper than that. His suffering is neither physical nor political, though it embraces all who suffer, whether in the body or in the body politic. His pain,--to return to Kitamore--is the price God pays for loving the unloveable, for hating sin but caring for the sinner, in a word, the price he pays to forgive without destroying the line that divides right from wrong, justice from injustice. The price he pays to save is to let his Son die, and in that pain his love and wrath are synthesized, "for the pain is the act of swallowing up his wrath." We do not suffer alone.

III. God is with us, and there lies our hope. The third fact of the cross is that our hope is in God alone. Not in our struggle. Not even in his suffering. But in the fact that He is God. But I do not need to remind Reformed theologians of that. Let me read on in the text: One of the criminals turns to Jesus (Luke 23: 42-43):

"And he sai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And (Jesus) said to him,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When we are in the presence of the King, how quickly hope goes to work. Even in our suffering, it becomes immediately operative. Note the word "today". God is with us now, and a surge of power and hope lifts us up in the midst of our struggles.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was the most moving mass demonstration against injustice in modern times. The price of Christian participation was that it be non-violent, and Christians led it. But it was put down brutally by the troops of the occupying colonial government. One of its leaders was Yi Sang-Chae, head of the YMCA, and outstanding Christian and a patriot. He was roughly interrogated by the Japanese police. "Who is the head of the movement? Do you know?" "Yes," he answered. They pounced on him like tigers. "Who? Tell us. Who is head of the movement?" "God", he answered calmly. "God at the head, and 20 million Koreans behind." But what if our struggle fails. Is there no more hope?

He is with us in our struggles, yes. But sometimes more important, He is with us when we suffer alone. The story is told of a dear old saint, incurably ill, who was visited by a younger friend. "You are suffering very much, I am afraid," said the younger woman, trying to be helpful. "Yes," said the older woman, "but look." She held out her hands. "There are no nails there. He had the nails; I have the hope." She pointed to her head. "There are no thorns there. He had the thorns; I have the hope."

Where then is our hope? In God, who in His Son, Jesus Christ, suffered on the cross. No cross; no hope. But if God be for us, who can be against us.